

최근 들어서는 WTO협정 이행에 따른 관세율 인하와 도하라운드에 의한 자유무역협정 등 한·칠레 FTA에 이어 한·미 FTA로 단계적 관세인하로 어려운 여건에 처함에 따라 국내 축산업이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

등급관정으로 본 개량의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



이재용
축산물등급판정소장

국내 축산업은 지난 30여 년간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과 육류소비의 증가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현재 축산업은 농업 총생산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WTO협정 이행에 따른 관세율 인하와 도하라운드에 의한 자유무역협정 등 한·칠레 FTA에 이어 한·미 FTA로 단계적 관세인하로 어려운 여건에 처함에 따라 국내 축산업이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

앞으로 수입 축산물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수입이 될 것이고 이는 국내 축산물의 거래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한 전문기관에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안전성과 가격 문제를 제외하고 맛이나 품질만을 따진다면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을 했다. 막연히 '한우고기가 우수하고 맛있으므로' 라든가 단지 '국내산' 이라는 것으로 소비자의 정서에만 의존한다면 우리축산물 소비기반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가능케 할 것인가? 그에 대한 해답은 소비자로 하여금 우리 축산물의 품질이

한우의 경우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후 5개월경에 조기 거세 실시 및 육성기 때 충분한 조사료 급여, 육질등급 향상을 위한 평균 28개월 이상 장기비육 및 출하생체중량 700kg 이상은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등지방두께 10mm 이하, 배최장근단면적(등심면적) 90cm² 이상인 지육거래 구매선호 기준을 맞출 수 있게 된다.

수입육보다 탁월하게 우수하고, 적절한 가격에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차별화된 신뢰감을 소비자에 심어주는 일일 것이다. 그런 신뢰감을 심어주는 구체적인 제도로는 우선 「축산물등급판정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축산물등급판정제도는 1992년 실시 이후 아래의 표와 같이 계속적인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있으나 아직은 품질고급화로 경쟁력 확보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지속적인 개량 및 사양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단위 : %)

구 분		1993	2001	2006
소 (한우)	육질 1등급이상 출현율	10.7	29.8	44.5
	거세율	0.3	20.6	40.6
돼 지	A등급 출현율	5.6	37.2	36.6
	거세율	5.6	47.5	97.1

그렇다면 고품질 생산을 위한 개량지표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자. 우선 한우의 경우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후 5개월경에 조기 거세 실시 및 육성기 때 충분한 조사료 급여, 육질등급 향상을 위한 평균 28개월 이상 장기비육 및 출하생체중량 700kg 이상은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등지방두께 10mm 이하, 배최장근단면적(등심면적) 90cm² 이상인 지육거래 구매선호 기준을 맞출 수 있게 된다.

돼지의 경우 소비자의 기호도를 감안할 때 생체중 115kg 전후로 출하하되 등지방두께는 17mm 전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량 및 사양관리 개선에도 힘써야 하겠다.



축산물등급제를 활용한 지속적인 종축개량과 체계적인 사양관리, 더불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우수축산물브랜드 육성산업,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정책 등의 효과적인 정착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농가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해진다면 우리는 충분히 한·미 FTA라는 어려운 상황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에서 언급한 등급제도를 중심으로 한 개량이 이루어졌다면, 다음으로는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인지도 향상으로 수입 육과 차별화 전략에 효과적인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과 「우수축산물브랜드 육성산업」 참여를 들 수 있겠다.

이력추적시스템은 소의 사육단계부터 축적된 정보가 유통시장까지 이어지면서 한우고기의 둔갑판매를 막을 수 있고 혈통관리와 개체관리, 방역체계 확립, 유통시장의 투명화 등 여러 가치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수축산물브랜드 육성산업은 통일된 사양관리와 계획된 생산체계를 통해 맛과 품질의 균일성, 사육환경 및 사료급여와 동물용 의약품의 휴약기간 준수 등 친환경적이고 위생·안전성이 뛰어난 축산물 생산의 기반이 된다. 이들의 제도를 적절히 병행하여 내부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든든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를 앞두고 소값 폭락을 우려하여 조기출하와 암소의 마구잡이 도축을 했다가 쇠고기 값의 폭락과 생산기반이 위축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미 FTA 협상은 비록 타결되었으나 지금 당장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10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다. 결코 길지만은 않지만, 짧지도 않은 기간에 축산물등급제를 활용한 지속적인 종축개량과 체계적인 사양관리, 더불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우수축산물브랜드 육성산업,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정책 등의 효과적인 정착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농가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해진다면 우리는 충분히 한·미 FTA라는 어려운 상황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